

‘새들의 고향 칠발도’ 바닷새 서식지 복원

〈신안군 비금면〉

바다쇠오리·바다제비 등 50여 종 이상 조류 서식 매년 2000여 쌍 이상 번식 쇠무릎 등 번식 새 폐사 몸살 국립공원공단, 유입식물 퇴출



▲ 밀사초 사이 알을 품고 있는 바다제비

◀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전경.

희귀조류 철새 중간기착지로 보호 가치가 높은 국내 대표적인 바닷새 서식지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칠발도’가 외부 유해식물 제거로 최적의 조류 번식지로 거듭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칠발도(신안군 비금면)에 바다쇠오리, 바다제비, 습새 등 바닷새의 번식지를 복원한 결과, 폐사한 바닷새가 2015년 약 400마리에서 2018년에는 2마리로 크게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칠발도는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고, 2011년에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돼 2014년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엄정보호구역(1a)에 지정됐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47km 떨어진 무인도인 이 섬은 해양성 조류인 바다쇠오리, 바다제비, 습새, 갈새 등 희귀조류를 비롯해 50여 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는 여름철새의 집단번식지다.

이 섬은 바다쇠오리의 국내 최대 번식지

로 매년 2000여 쌍 이상이 번식한다.

또 봄철 우리나라로 이동해 6월부터 10월 사이 번식하는 바다제비의 경우 전 세계 개체군의 80% 이상이 칠발도와 인근 구굴도에서 번식하고 있다.

이런 칠발도는 과거 1990년대 중반까지 유인등대로 이용됐을 때 사람의 출입과 함께 유입된 쇠무릎, 갯, 가시복분자 등이 점차 번성해 매년 수백 마리의 바닷새가 폐사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칠발도에 서식하는 조류는 천적에 숨을 수 있도록 바위 틈 사이나 풀의 뿌리 밑에 굴을 파 동지로 삼는다.

이 때 곡, 갯, 억새, 쇠무릎 등 외부에서 이 섬으로 유입된 식물이 이곳에서 자생하

는 밀사초보다 크게 자라 생장을 방해하거나 뿌리번식으로 바닷새들이 동지를 만들기 힘들게 하는 등 치명적인 위협이 됐다.

특히 9월과 10월 갈고리 모양의 쇠무릎 열매가 바닷새가 동지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날개에 엉켜 붙어 날갯짓을 못 하면서 탈진해 죽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까지 매년 400마리 이상이 폐사체로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유입식물 퇴출 작업을 벌였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바닷새가 주로 사는 섬 남쪽 일대에서 쇠무릎을 제거하고 3800㎡에서 유채, 쑥대 등 밀사초 생장을 방해하는 키 큰 초본류를 뽑아냈다.

유입식물을 제거한 자리에는 육지에서 3년간 키운 밀사초 1만 4000포기를 심어 뿌리 아래 구멍을 파 동지를 만들거나 바닷새들이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닷새 서식환경을 조성했다.

이 결과 바닷새 폐사체는 2016년 23마리, 이듬해 11마리, 지난해 2마리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칠발도는 여름 철새가 이동 중 번식과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바닷새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쓰레기ZERO도시-플라스틱 제로화

광주환경운동연합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

국내의 자원순환도시 사례공유를 통해 ‘도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현재 도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오전 9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에서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의 ‘쓰레기ZERO도시-플라스틱 제로화’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근 플라스틱·비닐 등 1회용품의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시에서의 자원순환 실현의 당위성과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플라

스틱 폐기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를 갖는다.

포럼은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와 지정·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미드보저(Meadhbh BOLGER·아일랜드) 지구의 벗 유럽 자원정의 활동가가 ‘폐기물과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의 정책과 계획’으로, 김이서 그린피스 한국지부 활동가가 ‘플라스틱의 역습 이제는 줄여야 할 때’ 주제로 진행하며, 진정화 광주시 자원순환계획 담당이 ‘광주시 자원순환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일 오후 2시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자원순환 활동가와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유럽활동사례를 통해 시민단체의 역할과 자원순환 교육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주시 국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상습침수지역 12곳

환경부는 여주시 국동 등 전국의 상습침수지역 12곳을 올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도입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매년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지자체가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주시 국동을 비롯해 부산시 수민동, 세종시 조치원

읍, 의정부시 용현동, 청주시 모충동, 충주시 문화동·연수동, 제천시 교동, 구미시 인동동, 김해시 내덕동, 밀양시 내이동·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 정도와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원(국고 2609억원)이 투입,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분쟁 원인재정’ 17일 시행...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분쟁 해결이 앞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송·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광주시 북구 내달 18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을 조기에 일깨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북구는 “내달 18일까지 두암·광주북·광주동·용봉·본촌초등학교 등 5개 학교 26개 학급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 분야의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쓰레기통을 말려줘!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질풍노도의 쓰레기 ▲씩씩 짹짹 잘 먹었습니다 ▲플라스틱은 고래밥이 아니에요 ▲땅을 살리는 건전지 분리수거함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두암동 두암초등학교에서 최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어린이 환경교실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엘로우 시티 Yellow City

장성군 Jangseong

감성으로 노란꽃잔치를 표현하다

전국 문불여백일장

가을, 꽃, 산, 들, 강 이러한 자연들이 문학을 하는 문인들에게 최상의 소재가 되는데 우리 장성의 가을노란꽃잔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글쓰기 아주 좋은 여건을 형성해 줍니다. 전국의 문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황룡강가에 모여서 글을 쓴다면, 우리 장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10월 5일(토) 10:00
장소 : 황룡강 공설운동장 옆 작은무대(소공연장)

주 제 : 엘로우시티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장성과 관계되는 작품
 분 량 : 문문-12행 이상, 산문-원고지 3매 이상
 시 상 : 학생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일반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 상금 :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 5만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접 수 : ws36910@hanmail.net 문 의 : 061-394-5500, 010-3605-3597